

#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료계 폐업철회를 위한 범국민 대책회의

|    |                                       |
|----|---------------------------------------|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담당기자                   |
| 발신 | 건강연대, 경실련, 서울 YMCA, 참여연대              |
| 담당 | 건강연대 정책간사 711-0835~8                  |
| 제목 | 의료개혁과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획토론회 보도협조요청 |
| 날짜 | 2000. 8. 28. (총 2 쪽)                  |

## 보도 협조 요청

### 의료개혁과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획토론회

#### <1차토론회 : 걱정부담-걱정급여-걱정수가의 길>

● 일시: 2000년 8월 29일 (화) 오후 2:00-4:00

장소: 참여연대2층 강당

<2차 토론회 : 보건의료 체계 및 인력(공공의료 및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 일시: 2000년 8월 31일 (목) 오후 2:00-4:00 장소: 경실련

<3차 토론회 : 의약분업 정착과제>

● 일시: 2000년 9월 5일 (화) 오후 2:00-4:00 장소: 추후공고

.....

1. 안녕하십니까?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료계 폐업철회를 위한 범국민 대책회의”는 의사들의 2차 폐업사태를 계기로 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결집하여 의약분업의 올바른 시행과 국민건강권 확

보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3.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료계 폐업철회를 위한 범국민 대책회의”에서는 의약분업을 계기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본격적인 의료개혁 작업을 시작하였고 이를 위하여 의료개혁의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의료개혁과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획토론회’를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4. 1차 기획토론회는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의 길”로, 현재 정부에서는 지난 8월 10일 ‘의약분업 관련 보건의료 발전대책’을 통해 국민적 동의 없이 의료계에 3조 7천억에 이르는 수가인상을 일방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지난 8월 24일 범국민 대책회의에서는 이에 대해 수가인상의 전제조건으로 1)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2)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3) 수가인상 이후에 의사들의 편법행위 근절이 있어야 하며, 4) 이를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알권리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가 인상방침의 경우는 이러한 조건을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한 채 막대한 진료수가를 일방적으로 대폭 인상하여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부담-저급여-저수가 정책의 건강보험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로의 전환이 함께 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과 방향을 밝히려고 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현재 폐업중인전공의들이 대거 참석하여 의료계와 시민단체간의 활발한 의견개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이에 아래와 같이 1차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 <의료개혁과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획토론회>

#### - 1차 토론회 : 의보수가 인상 타당한가 -

- 주최 :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료계 폐업철회를 위한 범국민 대책회의
- 주관 : 건강연대, 경실련, 서울 YMCA, 참여연대
- 일시 : 2000년 8월 29일(화) 오후 2시~오후 4시
- 장소 : 참여연대2층 강당(전화 : 02-723-5056)  
(지하철 3호선 안국역 하차, 종로 경찰서 맞은편 안국빌딩 신관 2층)
- 토론회 진행
  - 사회 : 신영전 교수(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발제 : 김기식(참여연대 정책실장)
  - 토론 : (시민단체) 강창구(건강연대 정책실장)  
(노동) 최삼태(한국노총 정치국장)  
(정부) 김태섭 국장(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 질의 응답 및 자유토론

※ 토론지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